

이웃과 더불어 '불자로 살아가기'



길 위의 삶, 길 위의 화두
김광하 지음
운주사 펴냄 | 9500원

노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작은손길'. 그 작은손길

의 큰손은 김광하 대표다. 사업과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이웃을 돌보는데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는 김씨는 자신의 이야기 보다 부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가 최근 펴낸 <길 위의 삶, 길 위의 화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빼곡하다. 첫 장 '부처님을 찾아서'에서는 부처님은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스승이자 현대의 삶에 고스란히 스며든 가장 큰 스승임을 강조한다. 이는 김씨의 삶이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지당한 얘기다.

다음으로 펼쳐지는 '불교 예제' 역시 살아 있는 부처님의 삶이 있는 가르침을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느낀 단상들로 채워져 있다. 이어 지는 '경전을 읽으며' '수행한담' '불자로서 살아가기' 등도 김씨의 실천적 삶을 지탱해 주는 가치들, 불교의 오묘한 가르침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희망의 기록들이다.

임연태 기자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자타카의 노래
김장열 지음
솔바람 펴냄 | 1만원

한 생애에서 왕으로, 또 다른 생애에서 신하로, 그 다음 생애에서는 비둘기로, 다양한 500여 생을 살았던 부처님의 전생담을 만화로 만나보자. 도서출판 솔바람이 부처님의 전생담 547편 가운데 20편을 골라 만화 <자타카의 노래>를 출간했다.

글과 그림을 담당한 저자 김장열씨가 내용과 의미가 분명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널리 알려진 이야기, 재밌거리를 더해 주는 이야기 20편을 골라 만화로 그려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만 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타카의 노래>에서는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우파니샤드> <조주어록> <금강경> <숫타니파타> <중아함경> 등 경전과, 김춘수 시사화 등 유명작가의 작품 한 구절을 배치했다. 보다 다양하게 이해를 돕고자한 저자의 배려다.

김지연 기자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신필' 뒤에 가려진 인간 김정희를 만나다

한승원 선생님께,
장흥 물산마을 해산 토굴에서 무심(無心)이라는 글자를 써 넣은 부채로 한 여름을 나산하던 선생님께서 <추사>라는 '대봉의 알'을 중생계에 선물하시니 '무(無)'의 뜻이 새롭습니다. '무(無)자는 하늘 천(天)자를 닮은 글자로 하늘의 텅 비어 있음과 같은 '없음'과 우주의 시원을 뜻하는 것이다' (본지 639호 1면, '명사의 여름나기')하던 선생님의 글이 장편소설 <추사>에서도 결실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여천무극(與天無極)'의 삶이란 스스로 하늘에 가까워짐으로써만 얻어갈 수 있음을 행간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7월 21일), 추사 가문의 원찰이었던 충남 예산 화암사 뒤 바위벽에 새겨진 '시경(詩境)'이란 두 글자 앞에서 명막이 흐려짐을 느꼈었습니다. 뇌리 속에 '시의 경지, 시의 경지'를 거듭 되이며 추사의 경지는 어떨까 자못 궁금했었습니다. <추사>에는 추사가 '시경'이란 뜻을 중국의 연경에서 얻어 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추사>를 읽는 동안, 추사의 경지는 '무(無)'에 있지 않나. 어쩌면 추사의 경지는 '경계 없음'마저도 벗어난 곳에 있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경'이 새겨진 바위 옆에는 추사의 친필로 '천축고선생덕(天竺古先生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경'은 추사의 글씨가 아니었지만 '천축고선생'은 추사의 친필이었습니다. 유학자인 추사가 불가의 부처님을 천축국의 옛 선생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바위에 새겼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추사 고택 뒤뜰의 모자가 푸른 몸집을 부풀리던 그날, 작은 양자 청화재에서 혜민 스님이 추사의 글씨를 잔뜩 보여 주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추사의 글씨를 있는 대로 모아 날을 따로 떼어 크기를 맞추어 복사해 놓고 있었습니다. 추사의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 원력으로 820여 자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일부러 '나 아(我)'자를 몇 가지 보여 주었는데 같은 글자, 같은 획, 같은 따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되지 않음이 추사체의 힘임을 그날 처음 느끼고 '불일치로써 천하를 일치시키려 했던 예술혼' 앞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나는 추사 김정희의 신필(神筆) 뒤에 가려져 있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김정희의 얼굴, 잘못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흘러가게 하려다가 다진 과정과 유배지에서 아파하면서도 치열하게 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 주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동기는 분명, 오늘의 독자들에게 "오락극세의 수렁에서 피어난 해탈과 자유의 꽃"(김훈 소설가인) 추사의 예술혼을 '고졸하고 기괴하고 광한' 선생님의 문자향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추사>는 업경대(業鏡臺)인 것 같습니다. 여래대 앞에는 있다는 것을, 살아생전의 모든 일들이 따노라마로 펼쳐진다. 추사의 일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추사의 업경대를 훑쳐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 개인의 업과 공공의 업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사>는 추사의 삶이 신산(辛酸)함으로서 완성되었고 신필로 칭송되는 예술도 고단한 세태를 이김으로써 우뚝해졌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쓸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마를 서늘하게 해 줍니다.

"한번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자기 때거리의 권력과 이권을 위하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외면해버리는 일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작가의 딸'이 아니더라도 해동의 소풍다, 동방의 유파거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추사의 한 생애는 바야흐로 '대선정국'을 향해 치달려가는 2007년의 대한민국에 '기괴하고 광한'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사>의 마지막 장면 '불가사의 해탈'에서 그 울림은 이렇게 언어 아닌 언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고 글씨도 아닌 이 동그라미 안의 세상은, 내가 평생 가지고 소원했던 시공이다. 말이기도 하고 말 아니기도 한 이 동그라미의 뜻을 나는 지금 침병을 한 채 문병객들을 불러들여 설명할 유마라지 거사의 말없는 말법으로써 불가사의 해탈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네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하하하."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추사 1,2
한승원 지음
열림원 펴냄 | 각권 9500원



'성지순례와 관광 모두 즐거라~!'

한눈에 보는 미얀마 여행



ENJOY 미얀마
류영수 지음
넥서스북스 펴냄 | 1만2000원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그동안 주로 성지순례객들의 순례의 땅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미얀마를 안내해주는 자세한 가이드북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 5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7만 1000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크기다. 수도는 양곤이며, 북부에 있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와 더불어 미얀마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미얀마의 지리, 역사, 관광지, 멋진 풍경 등이 자세히 소개된 가이드북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가슴속 부처를 모시며 위빠사나 명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미얀마 사람들의 흔적과 그들의 삶도 곳곳에 들어있다. 다크멘터리 제작자이자 사진작가인 저자의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곳곳에 Tip으로 녹여 이 책 한 권 있으면 성지순례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특히 4월5일, 7일, 20일 등 시간별로 관광과 순례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짜놓아 단기간 중기적으로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류영수씨는 "가난하지만 결코 그 가난만큼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며 행복과 불행이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미얀마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부처는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영리 브러쉬	솔바람
4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자	운주사
5	절을 기가쳐 잘하는 법	청견	벗더의 마을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툼텐 초드론	미디어 월
8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절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할리우드 붓다

성휴 스님 신국판 · 292P · 정가 10,000원

영화 '원초적인 본능'으로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힌 배우 사론스톤은 불교를 수행하는 것과 신을 믿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느냐는 주위의 질문에 "믿음과 연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붓다와 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라고 반문한다. 그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로써 큰 스승인 붓다의 현실적인 가르침을 믿을 뿐"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는 할리우드 보살이다. -불교신문

리처드 기어, 사론 스톤, 제니퍼 로페즈, 앨리스 모리셋, 마이클 스타인, 패티 스미스, 허비 헨콕, 필립 글래스, 조지 루카스, 왜 그들은 불교에 귀의 했을까? 참으로 많은 것이 궁금해진다. 그들이 스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불교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아는 것은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의 종교인가를 파악하는 길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근현대 고승 30인과의 불꽃 튀는 법가담 95화
평생을 재방선원에서 선수행을 해온 영흥 스님이 경봉, 전강, 춘성, 해암, 서용, 향곡, 상수, 송산 스님 등 근현대 30여 신자스님의 95회 법가담을 통해 불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흥 선사 법문 · 김성우 엮음
신국판 변형 · 350P · 정가 13,000원

하림이예요
하림스님의 좌충우돌 도심포교 그리고 수행 이야기
불자들에게 보내는 맑고 청량한 편지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면서, 포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림 스님의 독특한 언어가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짙어감과 같이 깊고도 상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림 스님 크라운판 · 118P · 정가 7,000원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송고한 구도 이야기
김성우 엮음
신국판 · 304P
정가 12,000원

금강경 이야기
조계종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의 금강경 해설
지안 스님 신국판 양장본 · 235P
정가 12,000원

또 다른 이가 나를 낳으리
인생을 재테크하라
박진어 · 최영식 신국판 · 224P
정가 10,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 MIND TEL. 02)2198-5151~2 Fax. 02)2198-5153